

민족의 영산이라 불리우는 白頭山(中國名·長白山)의 植物을 답사하게 된 것은 中國 南京 植物園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지난 7월 27일부터 8월10일에 걸쳐 14박 15일 일정으로 한국자연보존협회 李永魯박사를 단장으로 서울대 임학과 교수 김태옥, 서울대 생약연구소 교수 지형준, 강원대 생물학과 교수 이우철, 성신여대 지리학과 교수 임한수, 고려대 생물학과 교수 김윤식, 성균관대 생물학과 교수 이상태, 한남대 생물학과 조교수 고성철, 전북대 생물교육학과 조교수 김무열과 필자를 포함한 10名の 學術調査團으로 실시되었다.

서울을 출발하여 中國 南京, 北京, 瀋陽, 長春, 延吉, 龍井, 白頭山, 圖們(두만강변)순으로 돌아 보았다.

지금까지 한반도는 거의 다 돌아보고, 美洲, 東南亞細亞, 호주, 파푸아뉴기니아, 북아프리카, 유럽과 西베르린등지를 답사하였지만, 금번 답사의 특별한 설레임은 아마도 平生에 갈 수 없었던 곳으로 여겨온 백두산과 天池를 보게 된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많은 설레임과 기대속에 우뚝 솟아 나타난 백두산과 천지의 모습은 우리 일행 모두에게 큰 기쁨과 감회를 주었다.

또한 학술조사단의 답사기간동안 날씨는 우리의 학술조사활동에 좋은 결과를 갖도록 해주었다.

백두산은 1702년 火山활동이 있었고 정상부근이 산성의 新火山岩으로 덮혔기 때문에 최초 반세기 동안은 植物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연 平均氣溫이 영하 7℃이며, 가장 추운 1월도 영하 25℃이고, 9월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하여 다음해 5월까지 계속된다. 강우량은 1년에 1,600mm이고, 7월~8월에는 집중적으로 비가 내려 결국 백두산의 고산지대는 춥고, 메마르고, 우량이 고르지 못하여 보통 식물은 잘 살지 못하는 곳이다.

그러나 금번 8월의 백두산은 영상 7℃로 따뜻하고 각종 꽃들이 많이 피어 화사한 꽃동산

같았다. 이러한 백두산을 뒤덮고 있는 울창한 삼림은 산록침엽수림대, 중부침엽수림대, 상부 침엽수림대 또는 고산식물대로 나눌 수 있다. 주로 삼림을 이루고 있는 수종은 분비나무, 가문비나무, 종비나무, 만주자작나무 등이 지배적인 종류이다.

해발 600~1,000m의 산록에는 잣나무, 분비나무, 전나무, 화솔나무, 신갈나무, 만주자작나무, 고로쇠(단풍)나무, 들메나무, 황경피나무,

# 白頭山을 답사하고...

吳 曙 子

(誠信女大 自然科學大 學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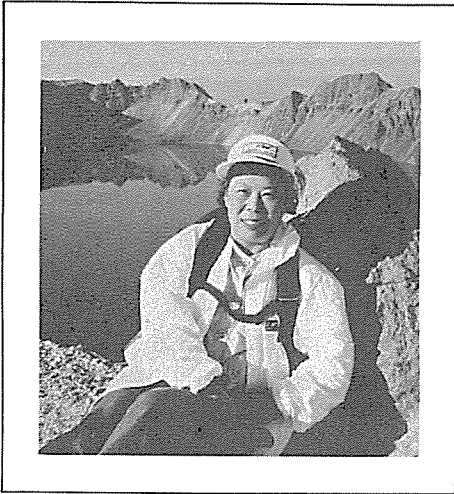
느릅나무, 장백송(一名:美松)등이 섞여 자라고 있었다.

숲아래에는 물개암나무, 백당나무, 고평나무, 산피불나무, 가시오갈피, 털조팝나무 등을 볼 수 있었다. 초본으로는 황금, 금매화, 애기금매화, 분홍바늘꽃, 자주꽃망이, 하늘나리, 물억새, 흰산오이풀, 가는잎돌쩌기, 송이풀, 개미취, 미역취등의 화려한 꽃을 볼 수 있었다.

해발 1,000~1,500m에서는 분비나무, 잣나무, 만주이깔나무와 같은 침엽수와 피나무, 거제수나무, 만주자작나무 등의 활엽수가 있었다. 숲아래에는 시달나무, 산겨릅나무, 흰털당마가목,

배암나무, 두메닥나무, 땃쟁이나무 등이 있었다.

해발 1,500~2,000m에서는 가문비나무, 종비나무, 분비나무, 사스레나무, 덩불오리나무, 피자작나무 등이 있다. 숲아래에는 땃쟁이나무, 배암나무, 눈산버들, 생열귀나무등을 볼 수 있었고, 해발 2,000m지점에서 수목 한계선을 뚜렷히 볼 수 있었다. 이 수목 한계선 위로는 키 큰나무도 더 이상 자라지 않고 키 작은 고산식물의 초원이 펼쳐지고 있었다.



해발 2,000~2,500m인 고산식물지대에는 키 작은 노랑만병초, 들쭉나무, 눈산버들, 콩버들, 곱향나무 등이 숲을 이루고 있다. 해발 2,000m 지점의 온천이 솟은 바로 위 바위틈엔 큰오이풀, 산오이풀, 비로용담, 과꽃, 구름송이풀, 투구꽃, 돌꽃, 나도수영, 바위솔, 두메취, 흰분홍투구꽃 등이 있었고, 메마른 돌밭틈을 뚫고 나온 두메양귀비, 하늘매발톱꽃, 개황기, 나도수영, 바위구절초, 범꼬리, 나도개미자리, 오랑캐장구채, 바위돌꽃, 팽이눈, 두메자운, 아마풀, 등대시호, 금불초 등이 일제히 꽃을 피우고 있었다.

정상부근의 구름과 같은 초원지대에서는 담

자리꽃이 군락으로 꽃피어 있었고, 가솔송, 화살분취꽃, 좀참꽃나무 등도 때를지어 꽃피어 있었다. 수목한계선에 가까워질수록 노랑만병초가 큰 군락을 이루고 있는 장관도 볼 수 있었다. 또한 드물게는 산용담과 초중용등의 식물도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백두산이 유일한 고산식물의 전모를 밝힐 수 있는 곳이라는 것도 확인되었다. 금번 조사에서 백두산 식물의 전부를 파악하지 못한 것은 짧은 조사시간과 북한쪽 백두산을 답사할 수 없었던 점이다.

중국측의 「장백산 식물약지」에 의하면 백두산에는 13,500여종의 꽃피는 식물이 있다고 밝혔다. 이중 약용식물인 지의류, 버섯종류인 진균류까지 포함하여 116과 499屬 900여種이 있고 한약과 생약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약 300여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이러한 백두산은 우리의 山蓼에 해당하는 長白山蓼과 각종의 오갈피류등이 풍부하여 생약 자원의 寶庫로 가꿀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백두산일대에서 채취되는 약용식물로는 장백蓼(山蓼), 오갈피나무 뿐만아니라 가시오갈피, 왕가시오갈피가 활엽수 및 침엽수림대에서 자라고 있다. 五加皮는 강장제로 쓰이고, 월굴은 이노살균제로 쓰이며, 열매는 날로 먹거나 과일주를 담는데 침엽수림과 고산지대에 자라는 식물이며 철쭉과에 속하는 키작은 나무로 땃들쭉 또는 들쭉나무등으로 불리워진다.

그외 五味子(채질개선, 청량제), 초중용은 오리나무더부살이로 불리워지며 식물체를 강장제로 쓴다. 바위구절초(부인병), 손바닥난초(정장제), 개미취(소염제, 어린순은 식용), 구름패랭이꽃(이노제), 황벽나무의 나무껍질은 지사제로, 나무는 목재로 쓰기 때문에 훼손당하기 쉬워 인공적으로 造林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백두산의 산록과 숲아래 열려진 장소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구릿대는 뿌리를 白朮(백지)라 하며 진통제 또는 진경제로 쓴다.